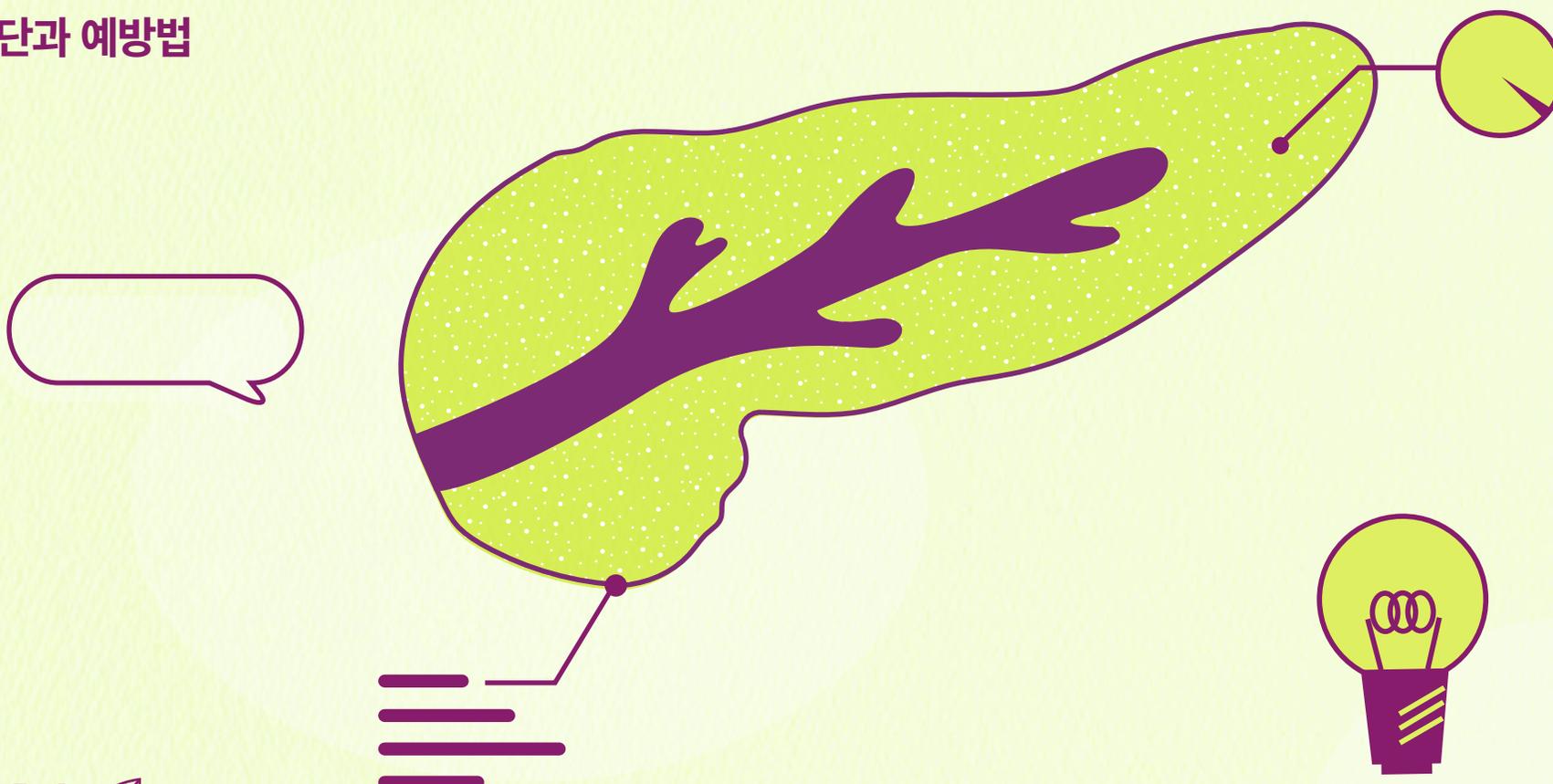


알기 쉬운 췌장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췌장은 어디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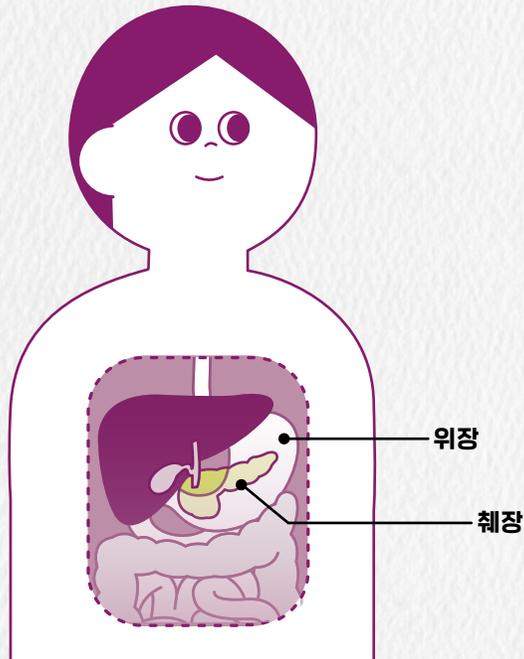
전 췌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췌장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췌장이 **담즙**이랑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췌장이 **간**하고는 별개인가요?

췌장은 복부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조 / 위치

췌장은 복부 안쪽, 위장의 뒤쪽에 있습니다.
췌장은 길이 약 15cm의 길고 가느다란 모양으로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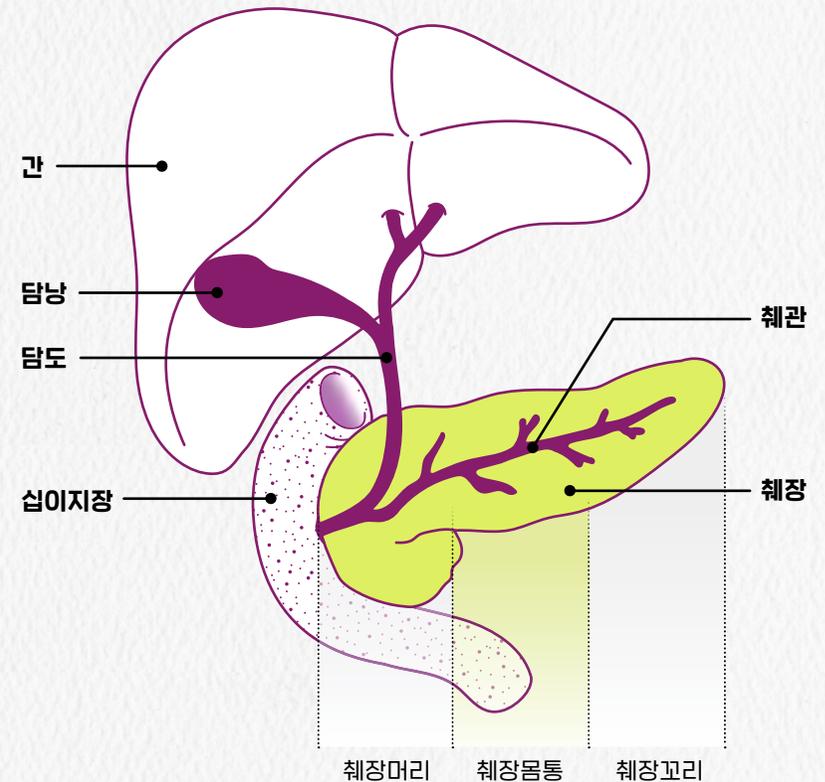
➤ 췌장에 암이 생기면 70% 정도가 췌장 머리 쪽에서 발병됩니다.
주변의 담도, 간, 십이지장 등의 장기로 암세포가 침범하거나 림프관을 따라 암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기능

췌장은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 췌장에 병이 생기면

소화효소의 배출이 감소하여 소화흡수장애가 생기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여 당뇨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 사망률이 다른 암보다 높나요?

췌장암이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주변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진단받으면 금방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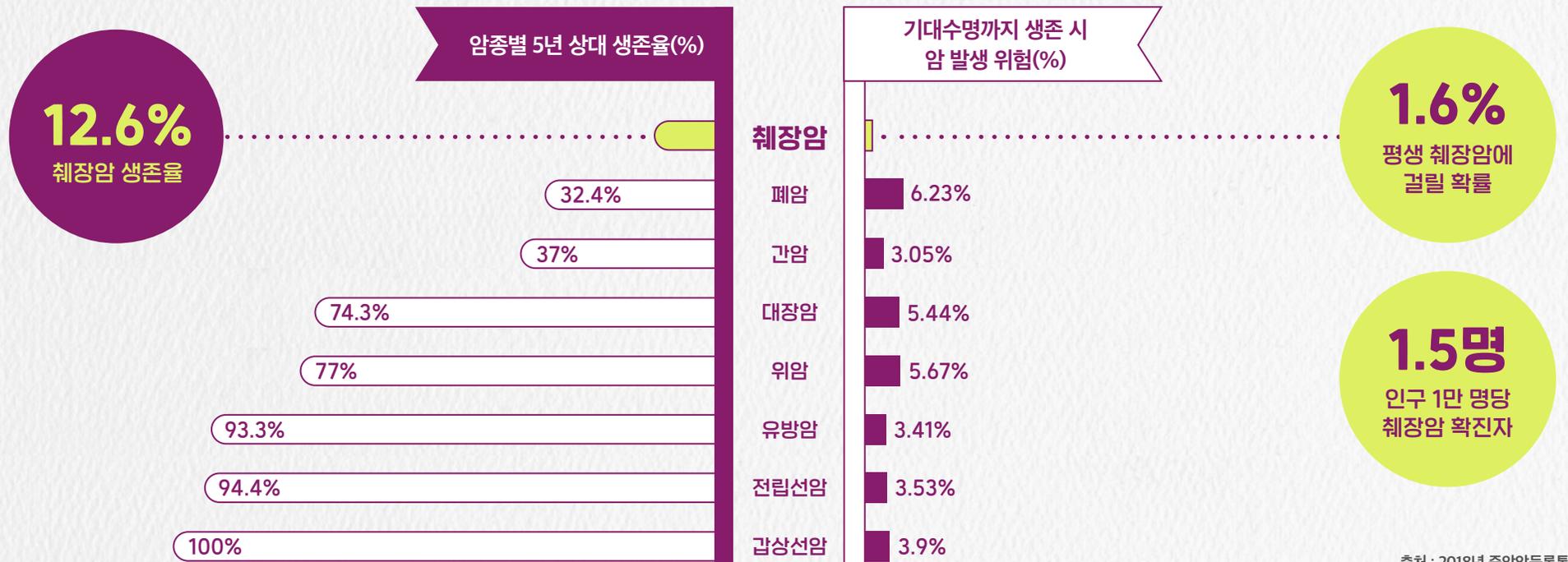
빨리 전이되고
고칠 수 없다던데, 맞나요?

췌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낮습니다

전체 암환자의 생존율 70.3%에 비해
췌장암의 생존율은 12.6%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행히, 췌장암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1년간 우리나라 사람 7,600명 정도가 췌장암에 걸립니다.
인구 1만 명당 1.5명 정도입니다.
평생 췌장암에 걸릴 확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궤장암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등이 아픈데
혹시... 궤장암일 수도 있나요?

계속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
이럴 때 조금 걱정이 돼요.

배가 쿡쿡 쑤시는 것도
궤장암 증상일까요?

궤장암에 걸리면
변 색깔이 회색으로 변한다고...

췌장암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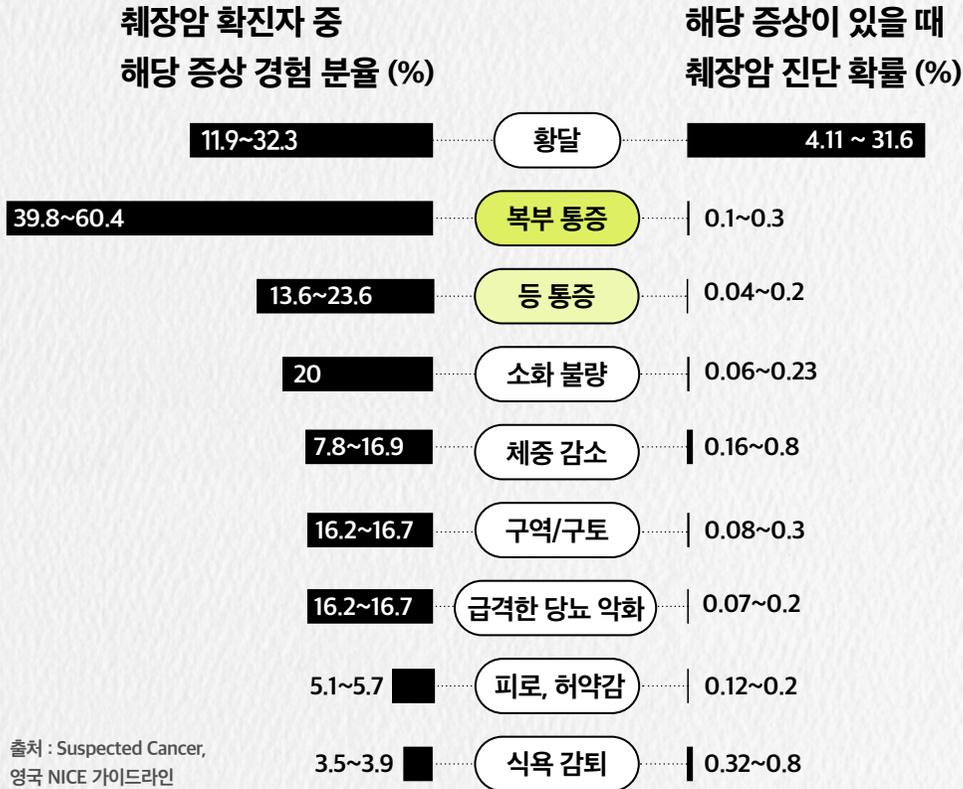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복부 통증, 등 통증으로
췌장암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1가지
증상만으로는 췌장암이라
진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경험과 췌장암 진단 확률



췌장암 환자의 증상



췌장암 확진자 중에 **복부 통증**을 경험한 경우는 40~60%에 이르고, **등 통증**을 경험한 경우도 5~15%이지만, **복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0.1~0.3%, **등 통증**이 있는 경우 췌장암으로 진단될 확률은 0.2%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황달이 생긴 경우에는 췌장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황달이 있거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 복통,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는 췌장암 관련 진단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검사받아야지 뭐~

내시경으로 보일 거 같은데?

혈액검사가
제일 정확하다던데?

어떤 병이든지
MRI 찍으면 다 나오지!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검사를 받습니다

- 복부초음파
- CA 19-9 종양표지자 검사
- 복부 CT 전산화 단층 촬영
- 복부 MRI 자기공명영상
- 내시경초음파



- 병기 질병의 진행경과에 따라 구분되는 시기

췌장암 의심 증상자 대상 진단 검사

췌장암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췌장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부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 복부의 주요 장기(간, 췌장, 비장, 신장, 담낭 등)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



CA 19-9

종양표지자 검사

혈액검사로 시행. 암의 조기 진단 목적보다, 췌장암 환자의 치료 예후 판정에 유용하게 사용.



복부 CT

전산화 단층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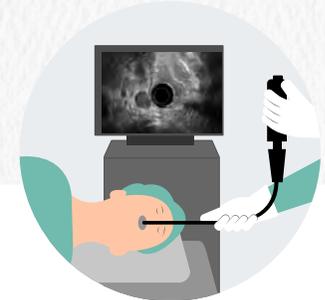
방사선을 이용하여 몸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검사. 췌장 포함 복부 속 장기의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복부 MRI

자기공명영상

자기장을 이용하여 몸속 장기와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이상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CT보다 해상도가 뛰어남.



내시경초음파

내시경으로 십이지장을 통해 췌장 가까이 접근하여 췌장 머리 부분을 초음파로 검사.

장점

비방사선

비방사선

정확도 높음

- 정확도 높음
- 비방사선

- 정확도 높음
- 비방사선

단점

정확도 낮음

정확도 낮음

- 비용이 매우 높음
- 방사선 피폭이 많음

비용이 매우 높음

- 내시경 검사가 고통스러움
- 비용이 높음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은 없나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면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CT를 찍어보면
조기 검진할 수 있다던데?

췌장암 검진은
몰라서 못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상이 없을 때 췌장암 조기 검진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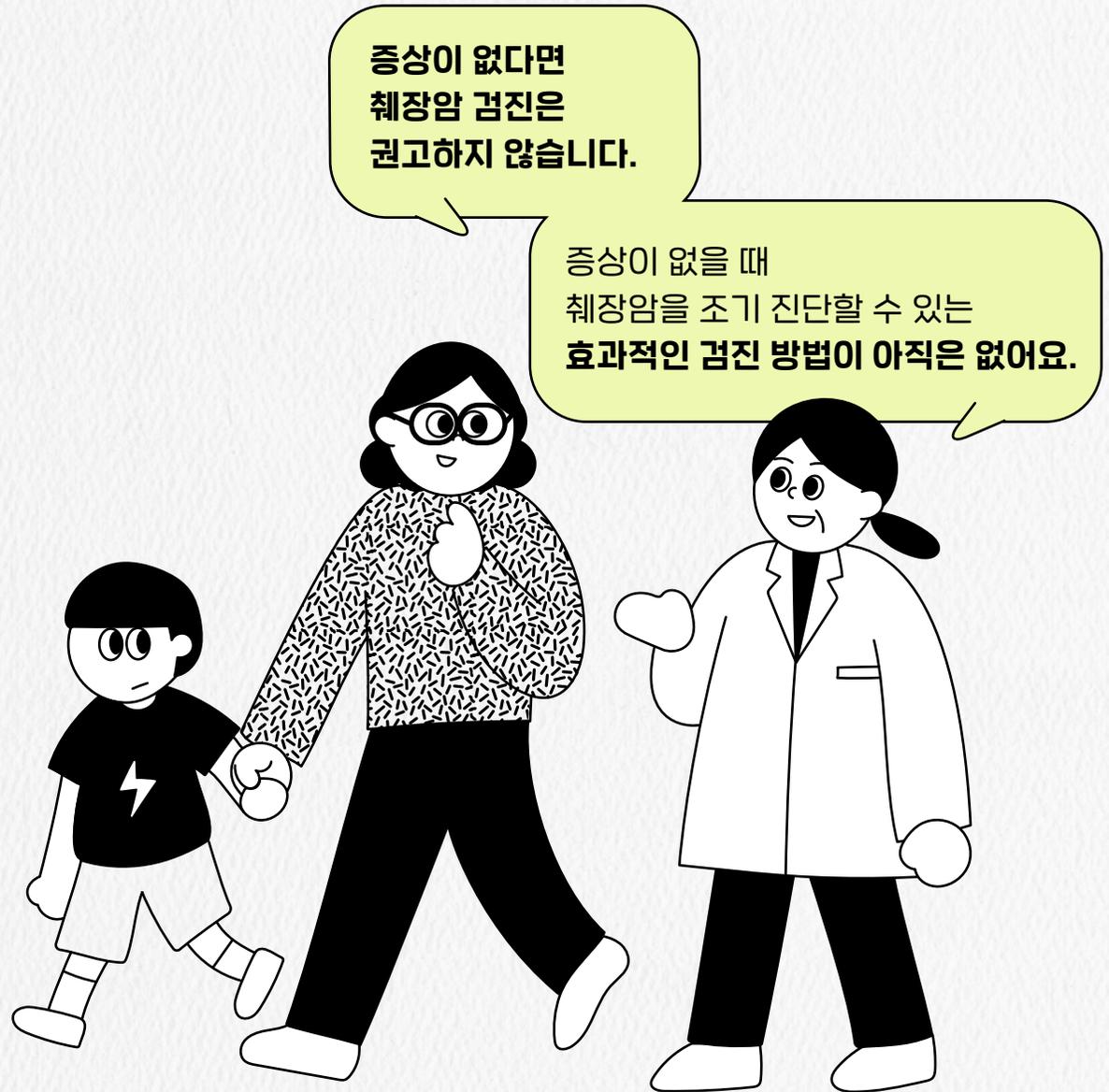
검진 ≠ 진단 검사

검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검진에서 해당 질병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단 검사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췌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학적 검사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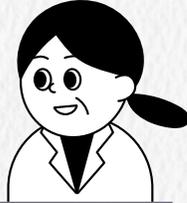




췌장암 조기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기 검진을 위한 검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낮은 정확도 #높은 비용



종양표지자(혈액검사),
복부초음파 비교적 검사의 위험도가 낮지만,
조기 췌장암 진단 정확도가 낮음

복부 MRI 정확도가 높지만,
매우 비싼 검사

복부 CT 정확도가 높지만,
방사선 피폭이 많음

내시경초음파 정확도가 높지만,
검사 과정이 고통스럽고,
비용도 높음

검진에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검진 결과 유효 기간 짧아



CT, MRI 등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통해
췌장에 암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도
검진 이후 6개월 내에
췌장에서 암이 자라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진의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검진을 통한 췌장암 발견 확률이
매우 낮은 데 비해 검사에 한계가 있고
검진 유효 기간은 짧군요!**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
권고 내용**

미국 보건부 산하,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는
췌장암 선별 검사의 잠재적 이익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췌장암 검진을 받지 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췌장암 검진의 효과가 낮고, 잠재적 이득보다 위해가 높아서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궤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검진이 어렵다면,
예방은 가능한가요?

제일 **효과가 큰** 궤장암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취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명확하며 근거가 충분함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나
권고할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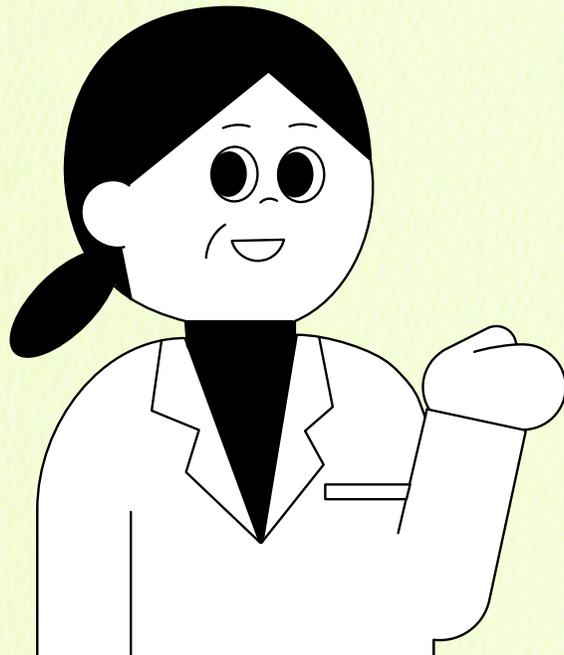


명확한 관계가 없거나 근거가 매우 부족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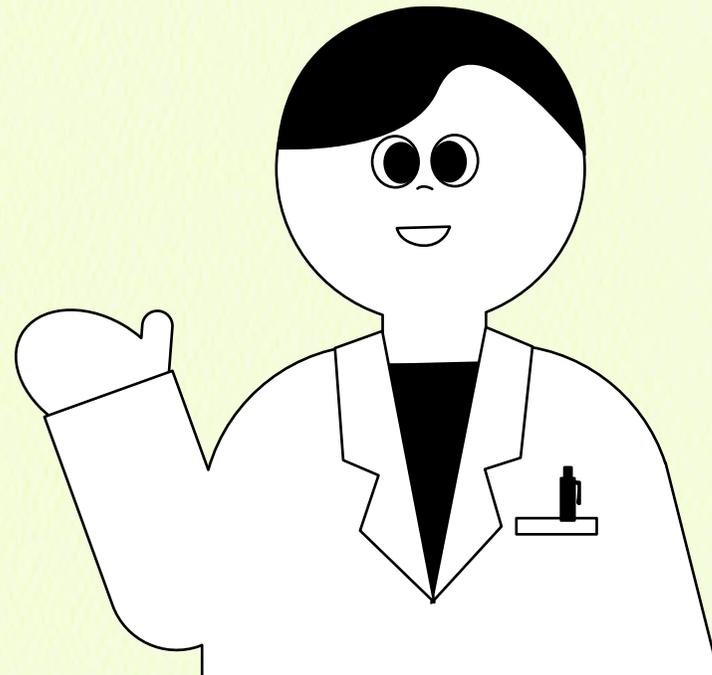
위험 요인	예방법
흡연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비만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당뇨병 만성 취장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 당뇨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받기 · 만성 취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식생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주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직업/환경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취장암 가족력	조기 검진에 대하여 의사와 상담하기

걱정 말아요, 췌장암!

무서운 암이지만 발병 확률이 낮고
조기 검진은 어렵지만 예방이 가능합니다.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알기 쉬운 책장암

조기 진단과 예방법

발행처 국립암센터

저자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편집/디자인/일러스트 소소한소통

발행일 2023. 3. 20.

본 정보지는 국립암센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입니다.

본 정보지의 판매 또는 상업적 사용은 금합니다.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행처인 국립암센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SN 2982-8732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ISSN 2982-8732